

요즘, 일본에서는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2가지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중의 하나는 「회사랑 레스토랑, 버스랑 전차등의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야만 한다. 담배 광고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주므로) TV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규칙을 만들어서 금지하는 것은 이상하다. 누구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당연히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이 2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첫번째 의견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누구든지 담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전에 저는 한 TV프로그램을 보고 무척 놀란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은〉 평생동안에 한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는데도 폐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평소,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접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한 금연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